

09

2020  
SEPTEMBER  
vol. 291

사람과 성장을 이어주는 한국산업인력공단

# HRDKorea



## NOW HRD

HRD 전문위원  
위촉장 수여식 현장

## 기술로(路) 인생

임건태 우수숙련기술인  
(소방설비)

## 돌아온 팀플전

공단 경북서부지사  
탐방기

# 09

2020  
SEPTEMBER  
vol. 291

발행일 2020년 9월 1일  
발행인 김동만  
편집인 김선영  
등록번호 울산중, 라00006  
등록일자 1982년 9월 29일  
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홍보실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전화 052.714.8195  
팩스 052.714.8200  
제작 디자인글꼴  
디자인 김은희  
글 김민정, 권혜란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591-1  
전화 051.636.1210  
[www.ggad.co.kr](http://www.ggad.co.kr)



QR코드를 스캔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보 구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시작해 DREAM

**04—07**

NOW HRD

2020 HRD 전문위원  
위촉장 수여식 현장

**08—09**

HRD 사용법

우수숙련기술 수확의 달,  
'직업능력의 달'을 소개합니다

**10—13**

HRD 현장사용법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디지털 컬처를 이야기하다

## 함께해 DREAM

**14—15**

HRD Focus

2020 전라북도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16—17**

채용의 정석

공정한 평가 환경의 조성,  
서울산업진흥원

**18—21**

기술로 인생

임건태 우수숙련기술자(소방설비)

**22—23**

생생 꿈지도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요리교실을 열다

## 약속해 DREAM

**24—25**

신박한 자격

도시의 균형발전에 관한 자격  
도시계획기사 vs 교통기사

**26—29**

상생과 협력

공단 상생협력관 참여기업  
시민B&F 시민베이커리

**30—31**

똑똑 여행

문화와 예술의 도시,  
울산 중구로 떠나는 여행

**32—33**

취업에 직방

2020 변화된  
신중년 취업 정책 파헤치기

## HRD DREAM

**34—37**

돌아온 팀플전

공단 경북서부지사 탐방기

**38—39**

인싸 책방

오래 준비해온 대답

**40—41**

당신의 청렴지수

윤리경영이 협업의 기반이다

**42—43**

HRD 뉴스

**44**

독자후기

## HRD는 상생과 협력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업은 다양합니다.  
사업의 모습은 다를지라도, 모두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번 9월에 개최되는 직업능력의 달 행사와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역기업을 위한 상생협력관 운영 등은  
다 함께 성장하여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HRD의 희망입니다.

# 혼자가 아닌 우리의 힘으로!



공단 상생협력관 참여기업 <시민베이커리>  
(왼쪽부터) 안은영 부장, 오지현 느린 제빵사, 박은진 대리, 이상엽 느린 제빵사

“조금씩 맞추어가며 기술을 익히고  
그 기술로 느리지만 정직한 빵을 완성하는 일!”  
함께 빵 만드는 일은 더없는 기쁨입니다.

공단 상생협력관 참여기업 <시민베이커리> 인터뷰 中 한 마디

두근두근,

## 변화의 첫 계단을 오르다!

### 2020 HRD 전문위원 위촉장 수여식

지난 7월 22일, 울산에서 2020년 HRD 전문위원 위촉장 수여식이 개최됐다. 공단의 새로운 시작점에서 56명의 제1기 HRD 전문위원이 다 함께 모인 자리. 시작을 향한 벅찬 두근거림과 뜨거운 박수갈채로 가득 찼던 수여식 현장을 전한다.





## 도약을 위한 새로운 시작

시원한 여름비가 내리는 7월, 한국 산업인력공단의 힘찬 도약을 위한 첫 발걸음을 기념하기 위해 공단 주요 인사와 HRD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56명의 임직원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HRD 전문위원제도란, 공단 내 HRD 전문위원을 육성하는 제도로 내부직원이 HRD 사업 전문가로 직접 참여함으로써 직원의 전문성

과 경력개발을 촉진하는 제도다. 특히 2020년은 그 첫 번째 기수를 위촉한 해로 더욱 의미가 깊다.

수여식은 능력개발기획부장의 개회식 선언과 경과보고로 시작을 알렸다. 능력개발기획부 김호연 부장은 향후 일정으로 하반기 국내 연수 보수교육을 할 계획을 밝히며, “HRD 전문위원들의 왕성한 활동을 통해 공단의 HRD 역량과 개인의 역량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선서문 낭독이 이어졌다. 선서문은 HRD 전문위원 대표로 송달영 경남지사장과 전북지사 차주해 대리가 낭독했다. HRD 전문위원으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하겠다는 다짐이 공단 임직원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순간이었다.

HRD 전문가로서의 의지를 한가득 품은 HRD 전문위원들에게 위촉장과 명함을 수여하는 시간, 공단의 성장을 주도 할 HRD 전문위원이라는 자격이 주어지는 순간이기에 위촉장을 손에 든 HRD 전문위원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함께 책임감이 느껴졌다.

공단 직원이 현장의 전문위원으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뜻 깊은 자리를 축하하기 위한 김동만 이사장의 환영사도 이어졌다.



이사장은 “수많은 관문을 통과하여 일자리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라며 “이 한걸음은 공단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기에, 제1기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갖춘 전문위원이 되기 위해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기획조정실 홍성문 과장은 HRD 전문위원 대표로 소감을 발표했다. 홍 과장은 “오늘은 능력개발사업의 핵심업무를 외부 전문가에 의존했던 과거와 결별하는 의미있는 날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인적자원개발 전문기관으로 내적인 힘을 키울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라며 기쁨을 내비쳤다. HRD 전문위원은 공단의 새로운 희망이라고 외치는 그의 눈에서 강한 자부심이 느껴졌다.

### 공단 미래를 위한 희망의 씨앗

이로써 2020년 제1기 HRD 전문위원이 위촉됐다. 한편, 공단은 HRD 전문위원을 발탁하기 위해 지난 5월,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HRD 전문위원을 공모했으며, 공모 결과 1급부터 6급까지 총 56명이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이후 6월에는 확정된 인력풀에 대해 전문인력 강화교육을 실시했고, 56명 전원이 전문교육에 참가했다. 7월에는 HRD 전문 위원 OJT를 실시해 공단 능력개발사업 심사, 컨설팅 등의 현장실습을 진행했다. 이처럼 교육, 현장실습 등 엄격한 절차를 통해 총 56명이 HRD 전문위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이들은 앞으로 능력개발사업 심사, 평가, 기업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하며 능력개발 전문 인력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공단은 HRD 전문위원에 등급 제를 도입하여 HRD 전문가로서 단계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확립했으며, 선발된 내부 전문가가 지속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대방안도 마련했다.

HRD 전문위원 제도는 핵심업무를 외부 전문가에게 의존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공단이 직업능력개발사업 선도기관으로서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직업능력개발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할 HRD 전문위원, 그 시작을 넘어 공단의 모든 직원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희망찬 미래를 기대해 본다.

## MINI INTERVIEW

2020 HRD 전문위원 위촉장 수여식

## HRD 전문위원에게 듣는 다짐 한마디!

부산남부지사 자격시험부

김수현 차장



HRD 업무를 오랜 기간 해오면서, 행정지원 업무에서 나아가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HRD 전문 위원으로서 직접적인 활동을 하게 되어 기쁩니다. 공단에서 직원들이 역량을 펼칠 기회를 열어 주셨으니, 그 길을 따라 개인의 역량도 개발하고 공단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HRD 전문위원이 되겠습니다.

광주지역본부 직업능력개발부

박태훈 부장



지금까지 외부 전문가들이 했던 업무영역을 이제 수십 년의 노하우를 가진 공단 직원이 직접 참여하면서 내부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됐습니다. HRD 전문위원으로 그 첫걸음을 함께 걸을 수 있어 영광입니다. 앞으로 많은 직원이 참여하여 많은 HRD 전문위원이 배출됐으면 합니다. HRD 전문위원이라는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수숙련기술 수확의 달, ‘직업능력의 달’을 소개합니다

## 2020 직업능력의 달 행사 개최



### 직업능력의 달 비전과 목표

매년 9월 개최되는 직업능력의 달 행사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의 대체·생성 등 다양한 환경 변화 속에서 인적 자원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끌어내고, 숙련기술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자 마련되었다. 2020년 올해 직업능력의 달 행사는 그 동안 개최해 온 ‘직업능력의 달’ 단위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반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단은 직업능력개발의 인식 확산을 위해 '97년부터 '직업능력의 달'을 지정하여 정부포상 및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행사를 진행해왔다('08년부터 9월 지정).

### 직업능력의 달 행사 구성

올해 직업능력의 달 행사는 변화의 시대, 위기를 기회로! ‘직업능력개발과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며 영예의 장, 공유의 장, 경연의 장, 체험의 장 14개 행사로 진행한다.

#### 영예의 장 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을 알리다

<b>직업능력의 달 기념식</b>	9.1(화) 14:00 더 플라자	능력중심사회 구현 및 확산에 공헌한 직업능력개발 유공자, 스타기술인 등 우수 기능인 포상
<b>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b>	9.18(금) 14:00 쉐라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수여를 통해 기업의 HRD 활성화 유도

#### 공유의 장 글로벌 HRD 트렌드와 비전, 방향을 모색하다

<b>제14회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b>	9.10(목) ~9.11(금) 코엑스	기업 등 HRD 관계자에게 국내외 HRD 최신 동향 및 선진기법, 현장학습 우수사례 등의 정보제공 및 상호 교류
---------------------------------	----------------------------	--

#### 인적자원개발컨퍼런스 방향 뉴 노멀 시대, 인간 중심 인적자원 개발

<b>NCS 세미나</b>	9.11(금) 14:00 코엑스	NCS 확산에 필요한 모범사례 공유 및 공감대 형성
----------------	-------------------------	------------------------------



**경연의 장**

중소기업 중심의  
교육훈련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다

**체험의 장**

청소년에 대한  
건전한 직업관 형성 및  
역량개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다



<b>일학습병행 우수사례 경진대회</b>	9.10(목) 10:00 코엑스	일학습병행 우수기업 사례 적극 발굴 및 확산
<b>NCS기반 우수 직업교육훈련 경진대회</b>	9.11(금) 10:00 코엑스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운영 우수 사례 적극 발굴 및 확산
<b>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b>	9.10(목) 9:30 코엑스	기업, 교육훈련기관 등 양질의 훈련과정을 적극 발굴 및 시상
<b>사업주훈련 우수사례 경진대회</b>	9.10(목) 14:00 코엑스	사업내 자격검정 운영 우수사례를 선정 및 포상
<b>현장맞춤형 체계적훈련 우수사례 경진대회</b>	9.11(금) 10:20 코엑스	사업주훈련 참여기업 우수사례 적극 발굴 및 포상
<b>제55회 전국 기능경기대회</b>	9.14(월) ~9.21(월) 전라북도	기업맞춤형 현장훈련 우수기업 및 중소기업훈련센터 선정을 통한 직업능력개발훈련 확산

<b>미래 내모습 그리기 대회</b>	9월~10월 국회, 지하철 역사 전시	직업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직업관 형성을 위한 미래 내모습 그리기 대회 그림 전시
<b>V-Log 공모전</b>	9.11(금) 10:30 코엑스	개인 역량개발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b>국가자격 취득자 수기 공모전</b>	9.10(목) 10:30 코엑스	국가자격 취득자 수기공모를 통해 국가자격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제고

\* 재직자와 구직자 등 국민 모두에게 풍성한 정보를 제공할 2020년 직업능력의 달 행사! 다양한 테마행사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해 보세요! 더 자세한 행사 소개는 직업능력의 달 홈페이지(<http://www.hrd-festival.org>)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발간일 9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조치로 행사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디지털 컬처를 이야기하다

SAP Korea Ltd.  
오용석 최고문화전문가



SAP Korea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분야 글로벌 1위라는 타이틀과 함께 독특한 기업문화로 명성을 크게 얻고 있는 회사다. 그리고 오용석 최고문화전문가는 SAP Korea의 기업문화를 새롭게 직조한 일 등공신으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이번 9월에 열리는 제14회 인적자원개발컨퍼런스에서 ‘디지털 컬처’를 주제로 강단에 설 그를 미리 만나보았다.

## 최적의 근무환경을 찾는 끝없는 도전

SAP Korea(이하 SAP)는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낯선 회사이다. 그러나 IT업계 관계자라면 SAP가 독일에 본사를 둔, 벤츠와 BMW를 뛰어넘는 시가 총액 1위의 IT기업이라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도곡동에 위치한 SAP Korea는 독특한 작업환경과 첨단 IT기술이 버무려진, 어디와도 닮지 않은 모양새를 자랑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은 SAP가 가진 독특한 기업문화이다. 서로를 파트너라고 부르며 호칭을 파고하는 것을 시발점으로 갖춘 수평적 조직문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장실과 임원실, 사무실 내 아무 데서나 일할 수 있는 모바일데스크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코로나19 이후 여러 기업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강제적으로 떠밀렸던 재택근무 역시

SAP에서는 이미 6년 전에 파일럿 테스트로 진행했던 시스템이었다.

“우리가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한테 적합한 최적의 근무환경이 무엇일까를 지속해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용석 파트너가 명쾌하게 설명한다. 그는 SAP 내에서 독특한 포지션을 자랑하는 인물이다. 최고문화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되 소속은 대표이사실, 그의 매니저는 대표이사뿐이다. 보통 기업의 직제를 생각한다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인물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이며 이는 SAP가 기업문화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천 마디 설명보다 확실하게 각인되는 부분이다.

“5년 전만 해도 제가 기업문화를 얘기하면 사람들은 하품부터 했어요. ‘너희가 구글이야? 그런 회사가 어딨어? 그건 완전히 딴 나라 얘기지’ 하는 반응이 대다수였죠. 그런데 유니콘 기업의 성공사례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몇 년 새 기업문화에 대한 관심이 불처럼 확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지르는 오류가 있었다. 바로 기업문화와 복지를 혼용하거나 혼동하는 것이다. 오용석 파트너는 직원들이 행복하게 회사에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이 일이고 목표지만 기업문화를 곧 ‘복지’라고 이해하는 것은 너무 한정적이라고 말한다.

즉, 기업문화 또한 디지털 컬처로 접근해야 할 때다. 과거에는 비디오아트 등 주로 예술 영역에서 이야기되던 디지털 컬처가 사람과 환경, 기술을 아우르면서 기업문화 자체를 이루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 자발적인 마인드 셋이 가져오는 행복

오용석 파트너는 코로나19 시대가 도래하면서 더욱이 ‘디지털 컬처’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고 운을 뗐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확진자 추이와 숫자, 동선을 홈페이지에 보고서 형태로 매일 정리해서 올립니다. 그런데 한 대학생이 앱을 하나 만들어서 확진자 동선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어요. 정부는 국민들에게 부족한 마스크를 주5일제로 공급했습니다. 한 유저가 마스크 재고 수량을 파악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했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정부와 기관이 하는 ‘업무’ 방식은 변함이 없었는데 앱이라는 ‘기술’이 접목되면서 ‘고객 관점’으로의 전환이 ‘자발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이에요.”

오 파트너는 이런 고객관점에 주목했다. ‘마인드 셋’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 것은 SAP의 기업문화를 만들어가면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었다. 제도가 만들어지고 사람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제도가 스며드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기업문화에서 다소 억지스러운 게 무엇이느냐 하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 직원들이 다 눈치채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주 디테일한 방식으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기업문화를 설계합니다. 참여율보다 인식률을 중요하게 여기고 중장기전략 계획보다는 큰 방향성을 갖고 가요. 끊임없이 임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현실에 맞게 수정을 하는데 사실 이건 매우 큰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에요. 365일 24시간 기업문화를 생각해야 하니까요.”

머리맡에 늘 수첩과 펜을 놓고 잔다는 오용석 파트너가 ‘고통’을 이야기하며 활짝 웃는다.



## 직원이 행복한 회사, SAP Korea

애자일 워크플레이스(Agile Workplace)는 SAP가 코로나19 이후 도입한 것이다. 이는 재택근무보다 큰 상위개념으로 집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일컫는다.

“우리의 목표는 모든 시스템을 100% 온라인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온라인이 좋은 영역이 있고 오프라인으로밖에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대체 가능한 영역도 있지요. 그 영역들을 빨리 구분해내는 게 우리의 생존전략이에요.”

콜라보레이션이나 커뮤니케이션 영역은 오프라인이지만, 고립상황에서는 태세전환과 효율성이 필요한 것이다.

한편, 오용석 파트너가 원하는 기업문화는 ‘해와 달’로 귀결된다. 스스로 외투를 벗게 만드는 따뜻한 해의 힘으로 조직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마인드 셋을 대체 어떻게 바꾸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성희롱예방교육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회사는 의무 교육인 성희롱예방교육을 놓고 디자인씽킹(SAP의 하소 플레트너 회장이 만든 교육프로그램으로 인간의 필요에 공감하고 대중이 모르는 잠재 욕구를 발굴해서 프로토타입까지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을 합니다.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성희롱 사례, 원인, 문제 등을 각자 포스트잇으로 붙이고 토론을 거쳐 결국 취업규칙까지 바꿉니다. 직원들의 참여를 통해 사규까지 변경하니 자발적으로 참여하려고 해요.”

직원들이 선택하게 만드는 SAP의 조직문화가 거둔 성과는 가히 놀랍다. 매년 진행되는 직원설문을 살펴보면, 자부심, 존중, 보상, 동료애 등 전 항목에 걸쳐 골고루 높은 점수가 나온다. 이 지수가 1점이 상승했을 때 9천만 유로에서 1억 유로까지 이익률이 늘어난다는 통계도 있다.

블라인드 앱에서 SAP Korea는 2019년 재직자가 행복한 기업 TOP 9 안에 들었다. 세계 80여 개국에서 운영되는 SAP지만 SAP Korea의 위상은 남다르다. SAP가 펜데믹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데 우리나라가 훌륭한 롤모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9월에 열리는 제14회 인적자원개발컨퍼런스에서 디지털 컬처의 실제 사례와 조직생존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IT 영역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테스트해보고 본인 회사에 적합한 걸 뽑아 쓰는 정보 공유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거시적인 시야를 위한 길잡이 역할, 그게 이번 강연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9월에 뵙겠습니다.”



# 미래를 여는 천년 전북, 기술로 꽂피우다!

2020 전라북도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어제의 땀방울을 오늘의 영광으로!’

또 한 번 숙련기술의 향연을 펼칠 전국기능경기대회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오는 9월 14일에서 21일, 8일간 전라북도 전주, 군산, 익산 등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16년 만에 전북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군산새만금컨벤션 센터 등 7개 경기장에서 폴리메카닉스, 기계설계/CAD, 그래픽디자인, 모바일로보틱스 등 50개 직종, 선수 1,800여 명, 기술위원 730여 명이 참가한다. 대표 선수들은 각 도에서 출정식을 마친 뒤, 전북에서 그간 갈고 닦은 숙련기술의 향연을 펼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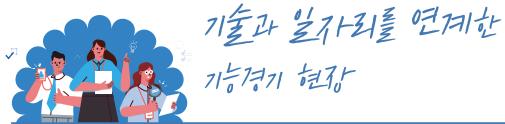
대회기간	2020년 9월 14일~9월 21일(8일간)
개최지	전라북도
경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등 7개 경기장(50직종)</li><li>- 열린경기장 :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9), (주)명신(9)</li><li>- 특성화고 : 전주공고(9), 이리공고(7), 전북기계공고(5), 전북하이텍고(6), 군산기계공고(5)</li></ul>
경기직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폴리메카닉스 등 50개 직종</li></ul>
참가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약 13,000명</li><li>- 선수 1,800여 명, 집행위원 1,200여 명, 시민 및 학부모 등 10,000여 명</li></ul>
주요행사	개회식 2곳, 기술위원회의, 주요인사 경기참관, 숙련기술 체험행사, 나눔과 다짐 한마당(시상식 및 폐회식), 취업박람회 등



## 한눈에 보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일정

고용노동부,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이 주최하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한국산업인력공단), 전라북도 기능경기위원회(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개회식 및 축하음악회, 기술위원회의, 주요인사 경기참관, 숙련기술 체험행사, 나눔과 다짐 한마당(시상식 및 폐회식), 취업박람회 등으로 진행된다.

일정	일자	내 용	장 소
1일차	9.14(월)	· 개회식 및 축하공연 · 환영리셉션	군산새만금 컨벤션센터
2~6일차	9.15(화) ~ 9.19(토)	· 제1일차~제5일차 경기 및 숙련기술 체험행사 등 부대행사 · 주요인사 경기참관(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각 경기장
7일차	9.20(일)	· 지역문화체험	전라북도 전역
8일차	9.21(월)	· 나눔과 다짐 한마당(시상식) - 50개 직종 입상자 시상 - 유공 시도 및 사업체 시상 - 유공자 시상 및 대회기 인계 · 시·도 선수단 귀향	군산새만금 컨벤션센터



### 전라북도 선도기업 JOB 콘서트

'20.9.15(화)~9.18(금),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 고졸채용 공공기관 및 지역 강소기업 취업 박람회

'20.9.15(화)~9.18(금),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야외행사장

### ‘숙련기술 채용을 한자리에’ 채용 게시판 운영

(청년특별채용관 구인게시판, 여성선호 우수기업 채용관  
구인게시판, 국민연금공단 등 우수협력사 전문채용게시판 등)

'20.9.14(월)~9.21(금), 전 경기장

### マイ스터 고등학교 진로상담관 운영

'20.9.15.(화)~9.19.(토),

2개 경기장(전북기계공고, 군산기계공고)

### 전통기술부터 미래기술까지 숙련기술체험존 운영

(전통기술, 실생활기술, 첨단기술 체험)

'20.9.15.(화)~9.19.(토),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 미래세대 직업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20.9.15(화)~9.18(금),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등 열린경기장

### 4차 산업 혁명 관련 직종 시연

(산업용드론, 클라우드컴퓨팅, 사이버시큐리티 등 3개 직종)

'20. 7월 중 직종설명서와 과제를 완성하여

대회기간 중 열린경기장에서 5~6명이 시연 실시

#### Point!

#### 전 국민이 안전한(Safe) 대회 운영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방역관리 안내 지침을 반영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지침 마련

⚠️ 발간일 9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조치로 행사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정한 평가 환경의 조성, 서울산업진흥원



### 특화된 블라인드 채용과정



## 도입 배경

## 기존 채용 방식에 대한 문제 인식

- ① 경영, 행정, 인문계열의 전공자만 입사
- ② 기본 자격증 소지자 선발
- ③ 행정 경험은 있어도 특색 있는 경험자 부재

참신한 시각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신입사원 선발 필요

: 편견을 야기하는 요인을 모두 배제하고 서울산업진흥원(SBA)에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에 맞는 NCS 기반의 블라인드 채용 전면 도입

추진 내용 및  
과정

## 편견은 모두 배제

장애정보 삭제 및  
면접관 관리 철저



## 실력 중심의 평가제도 설계

블라인드 매트릭스 도입



## 지원자의 알 권리 총족

인사담당자 및 직무담당자  
인터뷰 영상 제작 및 홍보

성과 및  
성공 요인

## | 성과

- ①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 획득
- ② 공정채용 평가지표 : 신입사원 만족도 조사(2019년 입사자)  
· 블라인드 채용 전면 도입으로 신규 입사자의 채용 절차 만족도 **고득점 취득**  
**(서울산업진흥원(SBA) 98점, 다른 기관 평균 94점)**

## | 성공 요인

- ① 블라인드 채용을 우리 기관에 맞게 철저히 분석
- ② 기관장, 내부의 강력한 의지
- ③ 지원자들의 잠재성, 역량 중심의 평가

## 향후 발전 방안

## | 스페이 아닌 직무별 역량 중심의 평가

: 일반행정 외 소방, 전산 직무에 적합한 평가방법 도입,  
블라인드 채용의 지속 도입으로 편견 없는 공정한 평가 환경 조성



## | 채용 오류 방지를 위한 사전 검증 강화

: 표절검사 실시하여 문제 오류 방지  
전형 단계별 3단계 전수조사(PM, 실무자, SBA)



## | 채용 비리를 예방하는 응시자 중심의 환류 시스템

: 입사지원 단계부터 채용청탁 금지 서약  
면접 응시자 대상으로 절차 만족도조사 VOC 청취

## 블라인드 채용으로 인한 변화

공정한  
평가를 통한  
직원 만족도  
향상!



직무역량과  
잠재능력  
중심의 평가!



김 수 민 선임연구원(5급)  
서울산업진흥원 인사팀

**Q —— 블라인드 채용의 가장 큰 장점은?**

**A ——** 첫째, 제도적인 관점에서 채용 비리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기관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문화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구성원을 갖추고 올바른 채용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자의 역량과 잠재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다양한 신입사원이 입사하는 기반이 되어 조직 차원에서 기대 이상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주 명 규 선임(7급)  
서울산업진흥원 기획조정실 커뮤니케이션팀

**Q ——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대해 평가한다면?**

**A ——**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스펙을 쌓기보다는 본인이 가진 역량을 바탕으로, 본인이 가지고 싶은 기업에 입사하기 위한 역량과 인재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기회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실제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별하기 때문에 신입사원이 현업에 빠르게 적응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속 시원한 대답을 원해요!**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Q&A

**Q —— 자기소개서에 수상경력을 블라인드 해야 하나요?**

(외교부 장관 표창 or ○○부 장관 표창)

**A ——** 수상경력은 블라인드 항목이 아니므로 작성 가능합니다.

# 기술로 인생

# 技術路

재주  
기  
재주  
술  
길로

2020

2018 2019

2016 2017

1980

1981

2001

2007

1978

- 1978 모 제과기업 입사
- 1980 삶의 스승인 아내와 결혼
- 1981 정수기능대학 졸업
- 2001 소방설비기사 외 자격증 취득
- 2007 (주)세종21 창업
- 2016 경영혁신 중소기업 인증,  
품질환경경영 인증  
(KS Q ISO 9001:2009 / ISO 14001:2008),  
천안시 안전관리/소방설비 명인 위촉

- 2017 공주대학교 경영학과 입학(재학 중)
- 2018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수상  
- 중소·중견기업 혁신대상(기술혁신상)  
법무부장관상 수상(개방교도소 교정교화 공로)
- 2019 제5기 충청남도 재난 방재 정책자문위원 위촉  
우수숙련기술자(소방설비) 선정
- 2020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도민참여단 위촉

# 진일보한 소방안전 기술로,

## 소중한 인명을 지키다

임건태 (주)세종21 대표



지난 2019년 8월,  
(주)세종21의 임건태 대표는  
전국 최초로 소방·방재 직종 관련  
'우수숙련기술자'로 선정됐다.  
여전히 미비한 소방안전 의식과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고 인재를 양성해  
소중한 인명을 지키는 데  
이바지하고 싶다는 그를 만나 보았다.

### 소방안전설비와의 인연 그리고 새 출발

2020년 상반기는 코로나19와 더불어 잇따른 대형화재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본 안타까운 시기였다. 소방·방재 직종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명성을 얻고 있는 임건태 대표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시선을 감추지 못했다. 연이어 터진 비극적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가 내렸던 결론은 하나다. '안전불감증'이 이러한 사고를 끝없이 반복한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그는 아주 일찍부터 화재의 공포를 체감했던 인물이었다.

"1971년 12월 25일에 일어났던 청량리 대연각 호텔 화재 현장 기억하시나요? 고등학교 시절, 방학이 되면 서울의 숙부댁에 놀러 가는 게 즐거움이었는데, 크리스마스를 맞아 남산에 올라갔다가 불이 난 걸 본 거지요. 헬리콥터가 떨고 멀리서 시커먼 불길이 치솟고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기억을 고스란히 얹은 채 기술자로서 삶에 뛰어든 임 대표. 기술자로서의 첫 출발은 기계 분야였다. 당시는 별도 소방관리기사를 두지 않고, 소방설비를 기계 및 전기공정의 일부로 취급하던 시절이었다.

"모 제과 기업에서 28년 가까이 기계설비 및 안전관리 관련 일을 했습니다. 큰 회사였음에도 소방기사가 한 명밖에 없었어요. 저 역시 처음에는 기계설비 및 보수 일을 하면서 소방설비 업무를 보조하는 개념이었지요. 그러다가 2005년에 소방설비 기사 자격을 따면서 본격적으로 소방설비에 관심을 두게 됐습니다. 소방관이 불과 얼마 전까지 지방공무원이었던 걸 생각해 보면 소방안전은 사실 많은 사람이 등한시했던 분야였죠."

임 대표는 정년퇴직을 불과 몇 년 앞두고 회사에서 나와 지금의 (주)세종21을 창업했다. 인원 감축, 명예 퇴직자를 받던 시기였던데다 기술자로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은 상태였기 때문에 과감히 새 출발을 준비했다.

"퇴직금과 국민연금만을 바라보며 살기에는 100세 시대에 남은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아내의 조언에 따라 30년 직장생활에 얻은 기술과 상식, 현장경험을 토대로 (주)세종21을 창업했지요."

그러나 그의 창업 의도는 남들과는 조금 달랐다. 돈을 버는 것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재능기부를 하고 후진 기술인을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다.

### 안전에 타협이란 없다

(주)세종21은 그의 고향이 막 세종시에 편입되던 2007년에 문을 열었다. 소방설비 분야 전문 시설공사업체로 총무팀, 공사1팀, 공사2팀 총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임 대표를 포함해 총 7명이 일하고 있다. 물론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할 때는 공사 규모에 따라 대규모 임시직원들을 수시로 채용한다.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도면 스터디를 합니다. 소방설비 밑그림을 그리고 건축주와 협의를 하는 거죠. 법규와 설비사후관리 및 예방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시설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공정업자들과 부딪치게 돼요. 그들이 원하는 보기 좋은 시설과 깔끔함이 소방설비 와 충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무의식 속에서도 ‘어디’에 갔을 때 ‘그’게 ‘거기에 있다’는 게 인지가 되어야 하는데, 소방 관련 장비나 시설을 필요에 의해 이동시키고 인테리어 때문에 감추려고 하면 결국 화재에 대비하고자 하는 소방시설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리니까요.”

소방설비에 대한 그의 확고함 탓에 현장에서는 옹고집쟁이로 통한다. 그와 오래 일한 건설사들이 붙여준 별명이지만 그 고집은 반대로 고객사들이 믿

고 찾는 임건태 대표를 만든 기반이기도 하다. 임건태 대표가 시공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바로 시공 후 AS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AS가 발생하는 순간 안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시공비의 몇 배를 지출해야 하는 ‘위험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애초에 두 번 손이 가지 않도록 완벽히 하므로 그의 시공은 소모품을 교체하는 경우 외에는 AS가 거의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임 대표의 이러한 완벽주의 덕에 (주)세종21은 현재 품질·안전경영인증(ISO9001, 14001, 소방시설, 전기, 기계설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nin-Biz) 인증 등 다수의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다.

### 신기술 개발과 소방안전 인재양성은 나의 숙명

그는 소방·방재 직종 관련 최초의 ‘우수숙련기술자’이다. 최초라는 수식어는 그에게 무한한 영광과 기쁨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막중한 사명감도 함께 안겨주었다.

“현재 소방설비자격에는 기능사가 없습니다. 우수숙련기술자나 대한민국 명장은 전부 기능사에서 시작하는데, 소방설비는 그 출발이 산업기사(기능보다 학문에 초점)이죠. 그래서 현장에서 사람을 고용할 때, 전기기술자, 설비기술자를 통해 어림짐작으로 기술을 배운 사람을 소방기술자로 써야 합니다. 소방설비가 하나의 전문 영역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임 대표는 소방설비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가 필요

우수 숙련기술자가  
되기 위한  
3가지 조건



①

### 소방설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춰라

현장경험으로 축적되는 노하우와 연륜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다수의 자격증과 특히 취득은 이런 열정에서 빛어진 것이다.



함을 인식하고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해 열과 성을 쏟아왔다. 지진대비 내진설비 특허 6종 출원, 한국형 건축물 가스배관의 내진 고정장치에 관한 연구 논문 2건, <소방설비공사 시공 관리하기>, <위험률 저장취급>, <자동화재 탐지설비> 등 소방설비 관련 현장지침서 5권 발행을 비롯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의 기술 및 경영컨설팅 지원,

NCS 현장훈련(S-OJT) 등 소방설비 전문가로 인정 받기 위한 초석을 쌓았다.

이같은 연구와 서적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자격을 얻기 위해서도 매 순간 도전하고 인내해왔다. 소방설비기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보일러기능사, 기계조립기능사, 가스기능사 등 365일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동안 총 8개의 자격증을 갖췄고, 2017년 건강의 적신호로 직장암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으면서도 현장 일과 연구를 멈추지 않았다.

향후 그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소방·방재 및 소방설비 공사를 위한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 둘째, 우수숙련기술자로서 후진 양성과 사회봉사에 매진하는 것이다.

“더불어 소방안전기준법을 현장에 맞는 현실적인 법안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화재는 평생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일이라며 투자를 꺼리지만, 그 한 번의 화재가 발생하면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뒤따르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소방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도 같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평생을 올곧고 바른 기술인의 자세로 현장에서 일해온 임건태 대표. 화재 없는 세상, 화재가 일어나도 인명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는 설비를 위해 그는 오늘도 현장을 누비고 책을 파고들며 후배들을 위한 강의에 분초를 쪼개며 땀을 흘린다. 한결같은 열정 그리고 성실함으로 말이다.

## ②

### 끊임없는 현장 시공개선을 고민하라

소방안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매 순간 피해자의 입장에 서야 한다. 불이 났을 때 어느 자리에 뭐가 있는 게 좋을지 끝없이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안전을 위한 개선점을 발견하는 길이다.

## ③

### 명확한 목표를 가져라

소방·방재 관련 학문기술인들은 많다. 그러나 기능인은 없다. 기술 향상을 위한 뚜렷한 목표와 방향이 있어야 한다. 자신만의 구체적인 목표가 있을 때, 소방안전 전문가의 꿈은 앞당겨질 것이다.

#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으로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요리교실을 열다

원정임 글로벌미션센터 한국어 교사

### 자격증으로 한국요리교실을 열다

“마사랍(masarap)!”, “얀(iyan), 까야(kaya)!” 일요일 오후 필리핀 사람들과 한국 요리 수업으로 김치를 만들던 날, 담근 김치를 먹으며 여기저기서 즐겁게 외치던 말입니다. ‘마사랍(masarap)’은 필리핀 말로 ‘맛있다’란 말이고 ‘얀(iyan), 까야(kaya)’는 필리핀 말로 ‘그래 할 수 있어!’라는 말입니다. 저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사입니다. 대부분 필리핀 외국인 근로자들로 구성된 센터에서 한국어 수업을 몇 년째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나 음식에 대한 체험 수업을 하던 중 필리핀 노동자들이 한식을 요리하는 데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국에 돌아가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 식구들에게 소개한다거나 한국에서 자주 먹었던 음식이라서 그곳에서도 만들어 먹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교사인 제가 한식을 제대로 배워서 가르쳐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침 집 근처 안산여성인력센터에서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반이 개설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처음에는 요리 순서와 정해진 시간 안에 음식을 만들 어내는 것이 어색했지만, 함께 연습하던 수강생들의 열의와 더불어 요리 선생님의 열정 덕분에 유익한 시간을 보내며 다양한 요리법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요리 수업을 마친 후에는 시간이 날 때마다 조리 방법을 익히면서 요리 실력을 연마했습니다. 드디어 시험을 보던 날, 조리 도구를 챙겨 긴장된 마음으로 전철을 타고 시험장에 도착하니 많은 사람이 대기실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과 남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늦은 나이에도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도전을 하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가서 출제된 요리를 조리하여 시간 안에 제출하고 나서야 긴장이 풀렸고, 시간이 흘러 합격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조리기능사> 자격을 기반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요리교실을 개설했습니다. 이후 안산시에 다문화 동아리 지원사업에 응모했고, 시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아 한국요리교실을 열어 매 월 1회씩 2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식을 체험하도록 하는 요리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잘 몰랐던 필리핀 사람들의 음식 취향

수업 주제는 ‘김치 만들기’, ‘닭찜’, ‘부대찌개’, ‘추석 음식(전)’ 등 한식 중에서도 필리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를 선별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에는 한국 사람들과 다른 여러 특징이 있습니다. 김치는 먹지만 매운 김치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더운 나라에 살지만, 냉면, 콩국수 등 차갑게 먹는 국수는 먹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름이면 즐겨 찾는 냉면도 잘 먹지 않습니다. 주로 육식을 즐기며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 닭고기를 좋아합니다. 대체로 음식을 짜게 먹는 편이며 특히 단 음식을 매우 좋아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근무하는 회사 식당에서 나오는 채소와 나물 종류는 잘 먹지 않는 편이라서 먹을 것이 한정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한식의 양념을 조금은 덜 맵게 구성했습니다. 몇 명 인도에서 온 근로자들도 있는데 이들은 매운 음식을 잘 먹기 때문에 한국 사람보다 더 맵게 고춧가루나 청양고추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보통 4년이 넘는 시간을 한국에서 지냅니다. 오랜 시간 한식을 먹다 보니 자신의 나라에 돌아가서도 한식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김치 만들기 수업 날, 며칠 뒤 필리핀으로 돌아갈 때 가져간다면 한 수강생이 자신이 만든 김치를 꼼꼼히 싸

고 있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만든 김치를 가족에게 먹여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도 한국김치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센터를 거쳐 간 필리핀 외국인 근로자 중의 한 명은, 가비테라는 지역에서 김치를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나라 식당에 한식 메뉴를 추가하거나 한식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통해 그들이 가족의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새로운 대안도 꿈꿔봅니다.

###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으로 주고받는 행복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이처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식을 세계화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였기에 꿈꿀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자격증이 없이도 한식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시나 도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데는 자격증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한식을 배우고 돌아간 외국인 근로자들이 건강에도 좋고 유익한 한식을 소개하며 한류 전도사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맛 있는 요리를 함께 만들고 나눠 먹는 즐겁고 유쾌한 추억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기회가 주어진다면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식자격증반을 개설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를 통해서 외국인들도 한식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익혀서 한국 사회에 장기적으로 정착하거나 현지로 돌아가 한식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격증은 따기는 힘들지만, 자격을 얻고 나면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 도시의 균형발전에 관한 자격

# 도시계획기사

66

도시 또는 도시와 연결된  
일정 범위나 권역을 대상으로  
도시개발계획을 수행하는  
'예측가'다

99

### 도시계획기사(Engineer Urban Planning)

도시계획기사는 도시계획과 도시재개발계획, 특정지역계획 등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과 그 집행과정에 참여한다. 도시계획기사 자격은 도시계획, 도시재개발계획, 특정지역계획 등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집행과정에 필요한 사회·물리적 여건에 대한 예측을 통하여 각종 시설의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호화하여 도면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

<b>검정형 자격 취득 방법</b>	<b>시험과목</b> 필기 : ① 도시계획론 ②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③ 도시개발론 ④ 국토 및 지역계획 ⑤ 도시계획관계법규 실기 : 도시계획 실무	<b>검정방법</b>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작업형(4시간 정도) ※제1과제(내용:인구추정 등/1시간)와 제2과제(내용:도면작성/3시간)로 구분하여 1일에 연속적으로 시행	<b>합격기준</b>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b>활용정보</b>	· 정부기관의 도시계획직, 교통직 공무원,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수자원공사, 지하철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민간 건설회사의 개발사업팀, 주택사업팀으로 진출할 수 있다.		



### 01 기술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사
- 산업기사 + 실무경력 1년
- 기능사 + 실무경력 3년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 교통기사

66

건강한 국가와  
도시의 기초가 되는 교통체계와  
도로상 교통량의 흐름을 관리하는  
'분석가'다

99

### 교통기사(Engineer Transportation)

교통기사는 교통공학적인 측면에서 도로상의 교통량을 추정하고 도로의 용량, 정지 및 추월 시기 등의 조사 및 도로의 경제성 분석을 토대로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도로를 설계하고, 통행분포 및 교통배분과 배분된 교통의 노선별 선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교통기사 자격은 이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교통현황 및 사회경제지표에 대한 조사·예측, 교통운영 및 관리, 교통계획 수립, 관련 계획 및 법규 검토, 교통영향분석 등을 수행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

<b>검정형 자격 취득 방법</b>	<b>시험과목</b> 필기 : ① 교통계획 ② 교통공학 ③ 교통시설 ④ 도시계획개론 ⑤ 교통관계법규 ⑥ 교통안전  실기 : 교통운영 및 관리	<b>검정방법</b>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필답형(2시간 30분) <small>※필답형 실기시험이므로 큐넷을 통해 출제기준을 참고해야 한다.</small>
		<b>합격기준</b>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b>활용정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교통부, 관공서 교통담당, 교통안전 지도원, 교통관리자, 교통관련 정부투자기관, 학계 및 교통관련 연구기관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고용될 수 있다.</li> </ul>	

### 02 관련학과 전공자

- 대졸(졸업예정자)
- 3년제 전문대학 + 1년
- 2년제 전문대학 + 2년
- 기사 수준 훈련과정 이수자
- 산업기사 수준 훈련과정 이수 + 2년



### 03 순수 경력자

- 4년  
(동일, 유사 분야)



“

## 어서오세요! 정성 가득한 빵을 구워내는 시민베이커리입니다

공단 상생협력관 참여기업  
시민베이커리

”



(왼쪽 뒷줄부터) 안은영 부장, 정영미 지원과장, 권태홍 생산과장, 김성현 느린 제빵사

(왼쪽 아랫줄부터) 박은진 대리, 오지현 느린 제빵사, 이상엽 느린 제빵사

울산 중구에 위치한 작은 베이커리.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볼 법한 베이커리지만,

이곳 <시민베이커리>를 들여다보면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다.

비장애인인 제빵사와 장애인인 느린 제빵사가 함께 빵을 만들어낸다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후원이 아닌 ‘일하고 나누는 기쁨’이라고 말하는 이들.

오늘도 노릇노릇 정성 가득한 빵을 굽는 이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Q&A로 전한다.





**Q 시민베이커리를 소개해주세요!**

**A 제빵사와 느린 제빵사가 함께 일하는 즐거움이 있는 곳!**

안녕하세요? <시민베이커리> 베이커리사업부 안은영 사업부장(이사)입니다. <시민베이커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제빵사들이 함께 일하는 곳입니다. 현재 세 명의 느린 제빵사와 두 명의 제빵 전문인력, 세 명의 관리자 총 8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느린 제빵사’라는 표현은 장애인 제빵사들이 비장애인보다 조금 더딜 수 있음을 인정하는 멋진 표현입니다. 어떻게 느린 제빵사들과 함께 일하게 되었는지 궁금 하실 텐데요. <시민베이커리>가 문을 연 것은 지난 2015년입니다. 울산시민교회 시민복지재단의 섬김과 봉사로부터 출발했는데요. 재단에서 노인복지시설에 이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열었고,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 ‘보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도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일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사회적협동조합 시민비앤에프(B&F)로 <시민베이커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주 선한 목적으로 많은 분들과 뜻을 함께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Q 시민베이커리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A 제빵기술, 첨가물을 넣지 않은 건강한 빵, 합리적인 가격**

<시민베이커리>는 첫째, 경상북도 최고 장인으로 선정된 국가대표급 제과기능장(이석원 오너셰프)이 운영하는 랑콩뜨레과자점의 기술지도로 빵을 만듭니다. 2015년부터 기술지도를 해주셨는데 지금까지도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둘째, 인공첨가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재료만을 엄선해 사용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어요. <시민베이커리> 제빵사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이고, 누구에게도 자랑스럽게 권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윤보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기 때문에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시민베이커리> 단팥빵은 할인가로 1,000원에 판매해요. 시중가에 비하면 30~50% 저렴한 가격으로, 부담 없이 빵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❶ 시민베이커리의  
지향점은 무엇인가요?**

**A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게**

세 분의 느린 제빵사는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데, 모두 각자의 임무가 있어요. 맨형인 김성현 제빵사는 아주 묵묵한 성격에, 세심한 작업에 뛰어나요. 호두파이 등 겹겹이 층을 내야 하는 ‘파이즈’를 잘 만들죠. 막내 이상엽 제빵사는 한 가지 기술에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익숙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무서운 속도로 능력을 발휘해요. 기계를 다루는 손놀림이 아주 뛰어나죠. 오지현 제빵사는 사람의 마음을 잘 살피고 굉장히 책임감 있는 성격이에요. 마들렌, 휘낭시에, 머핀 반죽은 지현씨 담당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양을 만드는 날에도, 자기 일은 자기가 마무리하는 걸 좋아하죠. 어느 때는 세 분의 제빵사분들이 선생님들을 가르쳐주기도 해요.(웃음) 그만큼 각자의 임무에 충실하게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❷ 모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우리가 원하는 건 ‘일하는’ 기쁨입니다**

우리 제빵사들은 모두 자부심을 느끼고 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금전적인 후원은 받지 않아요. 그 대신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세요!”라고 말하죠.(웃음) <시민베이커리> 빵 판매는 주로 ‘꾸러미 후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몇 해 전 장애인의 날에 <랑콩뜨레과자점>의 지원을 받아서 2,000개의 빵을 나눔하면서 빵 맛을 보고 서 후원해주는 분들이 많이 생겼죠. 꾸러미 회원 금액은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다양하고요. 금액에 따라 빵을 꾸려서 매달 배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 대상으로도 물론 판매합니다. 느린 제빵사들이 일하는 곳인 만큼 2~3일 전에 여유 있게 주문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시민베이커리>를 찾아 주신다면, 일하는 기쁨을 주신 만큼 정성스러운 빵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 언제든 시민베이커리를 찾아주세요!

### •빵/케이크류•

블루베리식빵, 무화과식빵, 땅콩크림빵, 앙금빵, 슈크림빵, 소보로빵, 단팥빵, 벌꿀카스테라, 갈릭햄치즈빵, 옥수수소세지빵, 콘치즈빵, 통소세지빵, 야끼모찌, 소프트콘, 후레쉬크림빵, 모닝빵샌드위치, 생크림케이크

### • 구움과자 •

미니파이, 수제초코파이, 호두파이, 고구마만주, 단팥만주, 단호박만주, 블루베리타르트, 스콘, 초코버터링쿠키, 초코쿠키, 치즈쿠키, 머핀, 마들렌, 휘낭시에

### • 선물세트 •

느린쿠키선물세트, 수제생초콜릿, 수제파이세트, 카스테라, 우리밀꾸러미, 산딸기롤케이크, 무화과파운드, 마카롱세트

### • 케이터링 •

디저트세트 : 시민베이커리에서 직접 만든 수제쿠키와 신선한 제철 과일로 구성된 소그룹 회의에 최적화된 개인용 디저트 세트입니다.  
\*최소 주문 수량 : 10세트 이상

### • 주문 방법 •

- ▶ 홈페이지 주문접수 : [www.siminbakery.kr/25](http://www.siminbakery.kr/25)
- ▶ 배송 : 울산지역 배송 가능하며, 3만 원 이상 주문 시 무료배송
- ▶ **Point!** 느린 제빵사들이 만드는 빵입니다. 주문하실 때는 최소 2~3일 정도의 여유를 갖고 주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149, 1층  
**전화** 052-716-0084



QR코드를 인식해  
상생협력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 상생협력관에 참여하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상생협력관 사용이 무엇인가요?

한국산업인력공단 온라인홍보센터가 예산·인력 등의 이유로 제품홍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위해 마케팅·홍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생협력관 어떻게 진행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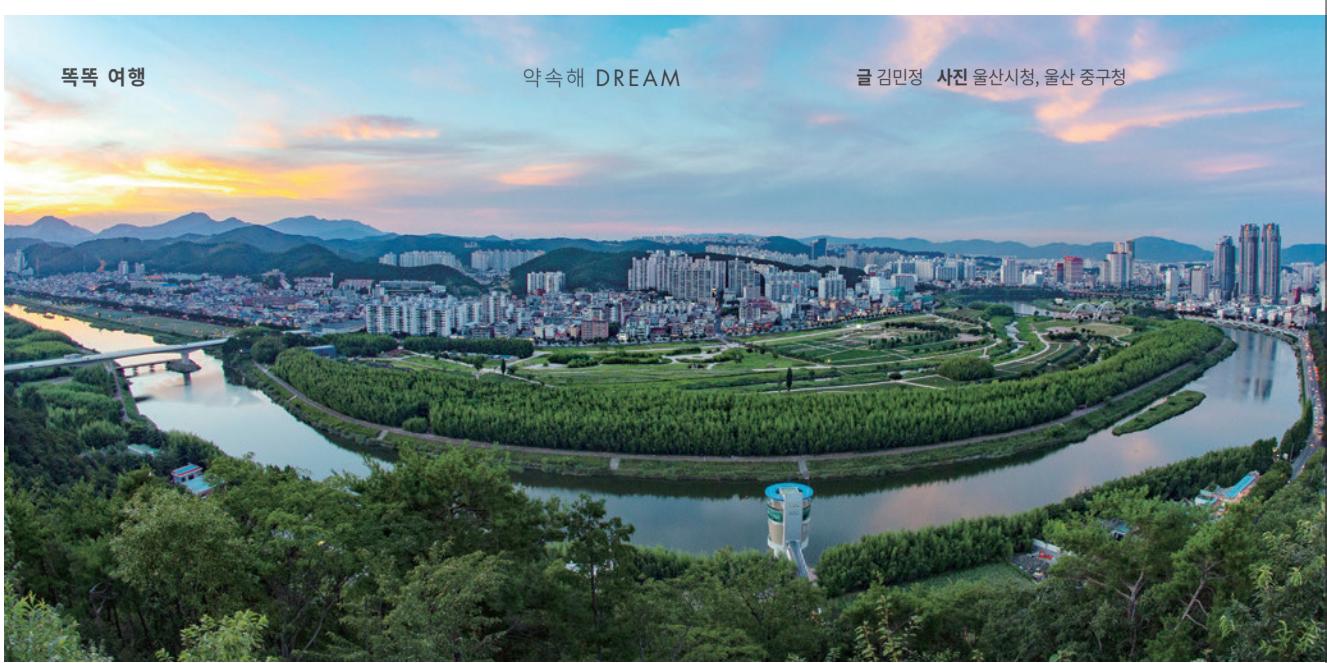
기업 제품 등록 (정보인프라 공유)	홍보, 마케팅 지원 (판로확산)	기업 혁신성장 지원
 기업이 직접 제품을 등록	 공단 보유 홍보 채널에 홍보	 제품문의 및 투자처 확보 등 혁신기업 경영성과 확대 지원

상생협력관을 이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 공단 정보 플랫폼 공유/개방

- 기업관계자가 직접 해당기업 정보를 등록 관리
- 빠르고 정확한 신제품 기업정보 반영 가능

홍보 효과↑



## 문화와 예술의 도시, 울산 중구로 떠나는 여행



### 울산 중구로 떠나는 여행

산업도시 울산의 전통과 문화의 중심, 중구!

옛 도심의 색을 그대로 간직한 채 조금씩 새로움을 더해가는 중구에는  
초록초록한 시간을 간직한 숲과 젊은 예술가의 감성 가득한 거리,  
행인들의 발걸음을 이끄는 다양한 전통시장이 있다.

이렇듯 도시를 세세히 들여다보면, 세분된 구만의 이야기가 있는 법!  
이번 여행에서는 울산 중구 곳곳을 누비는 재미를 전한다.

#### 우리나라 제2호 국가정원, 태화강국가정원

울산 중구를 여행한다면, 단연 ‘태화강’이 여행의 중심이 될 것이다. 지리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울산의 삶과 문화의 중심에 태화강이 있기 때문이다. 태화강공원은 지난해 7월, 그 생태 가치를 인정받아 한층 더 높은 차원의 태화강국가정원으로 거듭났다. 우리나라 제2호의 국가정원으로서 이제는 울산시를 넘어 국가 차원에서 가꾸고 보존해야 할 생태 자원이 된 것이다. 태화강을 따라 이어진 십리대숲은 태화강국가정원의 아름다움을 배가한다. 십리대숲은 중구 태화강 상류의 대밭으로, 그 길이가 4km, 즉 십 리라 하여 십리대숲으로 불린다. 약 900여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백로와 까마귀가 찾는 철새 도래지로도 유명하다. 해가 완전히 기울면 십리대숲 은하수길에서 밤하늘 은하수 불빛을 누리고, 이어 십리대숲교로 이동해보자. 너무나 방대해서 걸어서는 다 담을 수 없었던 태화강국가정원 일대가 하나의 빛으로 모여드는 장관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 태화강국가정원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일원 | 운영 상시개방(일부시설 제외) | 구성 생태정원, 대나무정원(은하수길), 계절정원, 수생정원, 참여정원, 무궁화정원



## 젊은 예술가의 감성, 문화의 거리

중구 문화의 거리를 보고 있노라면, 원도심이 재생의 길을 걷고 있는 듯해 반갑다. 울산 중구 성남동과 옥교동은 울산의 오랜 원도심으로, 그야말로 핵심 상권이었던 동네다. 어느 지역이나 그렇듯 울산도 중심 상권이 남구로 이동하면서 쇠락의 길을 걷기도 했지만, 오랜 세월 쌓아온 가치를 쉽사리 놓칠 수 없는 법. 중구청에서 꾸준히 원도심 재생사업을 해오면서 다시 문화의 거리가 움직이고, 울산의 오랜 설화인 <울산큰애기> 시리즈가 상권을 두드리면서 중구가 또 한 번 활력을 되찾고 있다. 울산큰애기하우스, 울산큰애기상점가, 곳곳에 설치된 울산큰애기 조형물 등이 시선을 끌고, 문화의 거리 외에도 맨발의 청춘길, 똑딱길, 고복수길, 성남동 거리(젊음의 거리, 보세거리, 패션 양장거리, 시계탑사거리) 등 중구만의 예술과 정취를 담은 길들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끈다.

문화의 거리 : 울산 중구 옥교동 일대

### 울산큰애기하우스(이팔청춘사진관)

울산 중구 문화의거리28(052-296-9191) | 1층 관광안내소 및 캐릭터 상품 판매소, 2층 큰애기방, 3층 이팔청춘사진관 | 운영 10:00~19:00(연중무휴) | 울산 중구청 운영(052-290-3693)

## 울산 중구의 터줏대감, 울산중앙전통시장

울산중앙전통시장은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의 울산 대표시장이다. 주단, 한복, 커튼·장식, 이불·침구, 의류·잡화와 더불어 각종

먹거리가 있는 시장으로, 저녁이면 야시장으로 바뀐다. ‘울산큰애기야시장’은 국내 최장이자 최대 규모의 야시장으로, 대표적인 별미인 먹장어(꼼장어) 골목, 통닭 골목, 죽 골목을 비롯해 푸드 부스에서 판매하는 떡볶이, 타코, 계란빵, 모둠전 등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 아케이드 설치 및 현대화, 공영주차장 마련으로 쾌적한 환경은 물론 흥정을 통해 물건을 사고파는 재미가 있는 전통시장 방문은 울산 중구 여행의 재미를 한층 더해줄 것이다.



### 울산중앙전통시장(울산큰애기야시장)

울산광역시 중구 번영로 329 중앙시장 | 전통시장 매일 09:30~20:00(둘째, 넷째 월요일 휴무) | 야시장 평일 19:00~24:00 주말 19:00~01:00(매주 월요일 휴무)

# 100세 시대, 장기적인 안목으로 취업처를 찾아라!

## 2020 달라지는 신중년 취업 정책 파헤치기

여전히 우리나라 노동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가장 많은 지출이 필요한 시기, 더 먼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5060 신중년들에게 ‘제2의 일자리 찾기’는 필수가 됐다.  
즉, 현업에서 물러난 아무개가 아닌 자신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신중년이며, 새로운 시작을 위해 2020년 달라지는 신중년 정책에 주목하라!



## 2020 새롭게 바뀐 신중년 고용정책은?

### 고령자

###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근무하던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요건** ①1년 이상 정년을 운영한 기업

②정년 폐지, 1년 이상 정년 연장,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 도입

**지원내용** 재고용 등을 한 정년 이전 근속 1년 이상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월 30만 원)

한국직업방송을 만나는 방법 **TV** SK broadband 273번, KT Olleh 252번, LG U+ 251번, skylife 189번, T브로드 210번, CJ헬로비전 230번, 딜라이브 256번

- 홈페이지·유튜브 실시간 방송시청 또는 VOD 다시보기(모바일 기기도 가능)

- 세부 시청 방법 및 지역별 채널번호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공단 직업방송매체부(052-714-8295)로 문의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의무화**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특히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된다.(’20년. 5월부터 적용)

\*재취업지원서비스란?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적합직무 확대**

2020년부터 지역의 특성 및 수요에 맞게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적합직무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지방관서별로 지역 고용상황을 고려하여 적합직무를 추가 인정할 수 있도록 재량 확대(5% 이내)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요건** ①정규직 채용(무기계약직), 월 60시간 이상 근로 ②3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금 지급 ③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 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확대**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하여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간 일자리로의 재도약 기회가 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확대된다.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 지원 가능



**신중년 취업정보,  
어디서 얻어야 할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QR코드를 인식해 각 기관들의 정보를 쉽게 얻어보세요!

**워크넷  
장년 우대 채용정보**  
[www.work.go.kr](http://www.work.go.kr)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www.nosa.or.kr](http://www.nosa.or.kr)



**한국무역협회  
잡투게더**  
[www.jobtogether.net](http://www.jobtogether.net)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50plus.or.kr](http://50plus.or.kr)



\*온택트 : 언택트(Untact)에 연결(On)을 더한 개념으로 온라인을 통해 대면하는 방식

#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 경북서부지사, 온택트\*로 인사드립니다!

## 공단 신규지사, 경북서부지사 ‘랜선 탐방기’ 촬영 현장 스케치

오른쪽 상단의 QR코드를 인식해  
랜선 탐방기 현장을 만나보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 전국적으로 신생 협관을 늘리고 있다. 신규지사 신설로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포부다. 좋은 소식은 널리 퍼져나가야 하는 법! 공단은 신규지사 홍보의 일환으로 경북서부지사의 ‘랜선 탐방기’ 영상 제작을 추진했다. 웃음이 가득했던 촬영 현장을 전한다.



(윗줄 왼쪽부터) 지역일학습지원부 최용석 차장, 직업능력개발부 김윤지 대리, 직업능력개발부 권기승 부장, 자격시험부 서혜진 대리, 자격시험부 박재환 부장, 자격시험부 안태환 대리

(아랫줄 왼쪽부터) 지역일학습지원부 김태균 부장, 자격시험부 김현지 대리, 송길용 지사장, 지역일학습지원부 박제연 과장, 직업능력개발부 이창호 차장, 직업능력개발부 김동민 주임, 자격시험부 김이동과장

### 경북지역 인적자원개발의 균형을 맞추다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 로비에서 곡선으로 이어진 계단을 오르자 경북서부지사의 간판이 눈에 띤다. 그 아래로 ‘랜섬 탐방기’ 진행을 맡은 자격시험부의 서혜진 대리의 밝은 미소가 가득하다.

“요즘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렇게라도 경북서부지사를 소개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진정성 있는 현장소식을 전하겠다는 그녀의 결의가 굳세다. 첫 촬영은 로비에서 경북서부지사를 소개하는 장면. 촬영팀이 장비를 옮기자 마주치는 사람마다 들어주겠노라 팔을 걷고 나선다. ‘타인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는 경북서부지사의 매너와 매력이 발산되는 순간이다.

촬영팀이 들고 가는 삼각대를 보니 경북서부지사와 겹쳐지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균형’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경북지역의 공단 지사는 북부권에 경북지사, 동부권에 경북동부지사가 전부였다. 김천, 구미 등의 서부지역 고객은 안동에 있는 경북지사로 방문할 수밖에 없어 접근성이 좋지 못했다. 그렇기에 경북서부지사 신설은 지역민에게 기능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의미가 크다. 두 다리로만 서 있던 경북지역의 인적자원개발 지원망이 세 개의 다리로 견고해진 것이다.

### 동반성장으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다

최근까지 임시 청사에서 최소의 인원으로 업무를 진행했던 경북서부지사. 신(新)청사에서 자리 잡고, 인원을 15명까지 증원한 건 불과 1개월 전 일이다.

“신규지사로 발령받으신 분들 모두가 그렇겠지만,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죠.”

직업능력개발부 권기승 부장은 경북서부지사로의 첫출발을 떠올린다. 국가자격시험 장소를 대여하는 일부터 사소한 일까지 새롭게 일궈야 했다. 어딜 가나 ‘스타트 멤버’는 고생이 많은 편. 그렇지만 ‘경북

서부지사가 생겨서 편해졌다’라는 고객의 말 한마디에 힘차게 달리는 그들이다.

지사장실은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지사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하이라이트’ 장소였다. 촬영 내내 여실히 드러난 송길용 지사장의 재치에 모두가 험박웃음이다. “경북서부지사가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북서부지사 송길용 지사장은 지사가 신설되기까지 가장 애를 쓴 이들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라고 말한다. 끝으로 그는 ‘균형감각과 유연성을 갖추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는 동반성장의 메시지도 덧붙였다.

### 사람을 향한 온(溫)택트에 힘을 보태다

촬영 장소를 정리하다 보니 내부 공지용 칠판에 ‘공부하자!’라고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온다. 권기승 부장의 말에 따르면 경북서부지사의 신조라고 한다.

“사람에 대해 알아가라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일도 사람에 대한 일이잖아요.”

사람을 향한 공부를 강조하는 경북서부지사는 회의실, 휴게실 등에도 예사롭지 않은 이름을 붙였다. ‘소통’, ‘공감’, ‘이룸’, ‘해냄’은 공단이 추구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다. 모두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나갈 비전을 담고 있다.

악수조차 함부로 할 수 없게 된 지금의 세상. 물리적 소통이 단절되면서 마음의 온기를 잃어가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식어가는 마음을 온(溫)택트로 데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경북서부지사가 업무시간을 쪼개어 ‘랜섬 탐방기’를 촬영한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랜선을 타고 자신들의 존재를 여과 없이 알린 경북서부지사.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를 바탕으로 지역민을 위해 고민하는 그들이 있어 경북서부 지역은 오늘도 따뜻하다.

## 돌아온 팀플전



국민이 스스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며  
능력이 기회를 만드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 직업능력개발부

#### 직업능력개발부가 맡은 업무는?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 학습조직화
- HRD인증 지원
- 숙련기술장려
- 외국인 근로자 고용지원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고 지역과 산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 지역일학습지원부

#### 지역일학습지원부가 맡은 업무는?

- 일학습병행
-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능력평가를 통해  
개인의 재능과 전문성이  
빛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 자격시험부

#### 자격시험부가 맡은 업무는?

- 국가기술자격(정기/상시검정)
- 국가전문자격시험(공인중개사 등)
- 과정평가형/일학습자격





### 경북서부지사 송길용 지사장 인터뷰

## 경북서부지사를 소개합니다!

**Q** —— 경북서부지사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 우리 지사는 2020년 1월에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성주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경북서부지사 신설이 확정되었고, 올 상반기에 청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지사는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 2층에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부 5명, 지역일학습지원부 5명, 자격시험부 5명으로 총 15명의 직원이 우리나라 최대 내륙국가산업단지인 구미에서 경북서부지사 첫 발걸음을 내디디고 있습니다.

**Q** —— 지사 신설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 그동안 구미, 김천 지역을 안동에 소재한 경북지사에서 관할했습니다. 지역 내 고객은 경북지사와 접근성이 떨어져서 많이 불편했습니다. 더군다나 경북지사 수요의 60%가 구미, 김천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서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손실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구미시를 포함한 지역 내 정·관계 인사와 지역민들의 요청과 도움으로 지사가 신설되었습니다.

**Q** —— 경북서부지사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 2016년부터 구미일학습지원센터에서 사업주훈련, 일학습병행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올해 8월부터는 현장맞춤형 체계적훈련, 청년취업아카데미, 숙련기술장려, 외국인 고용지원 등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수행합니다. 이에 연간 300개 기업과 65,000여 명의 근로자가 우리 지사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격시험 업무도 올해 8월부터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Q** —— 경북서부지사의 올해 하반기 목표는 무엇인가요?

**A** —— 우선 지역 내 신설된 경북서부지사를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맡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구미시, 구미고용노동지청, 지역대학 등 유관기관과의 대외 업무협력과 대민 흥보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현재 지사의 관할 지역에는 산업단지와 노동인구가 밀집한 구미시, 김천시 외에도 칠곡군, 성주군이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이 지역 기업과 주민들에게도 직업능력개발 참여와 자격시험 응시 등 기회를 넓혀 편의에 큰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 오래 준비해온 대답

**일학습지원국 일학습기획부  
독서모임 퇴근길 책 한 잔이 바라본  
여행을 통한 자기성찰**

## 한송이 과장

안정적인 교수직을 내려놓고 시칠리아로 시작해 밴쿠버, 뉴욕까지 2년 넘게 정처 없이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다소 비현실적이었지만 현지에 도착해선 오지 않는 기차를 하염없이 기다리기도 하고 말도 잘 안 통하는 낯선 곳에서 물어물어 길을 겨우 찾아가기도 하는 절대 쉽지 않았던 과정들은 우리의 여행과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장기 여행자로서 보내는 여유로운 시간, 시칠리아의 아름다운 풍경이 그려지는 것은 물론 작가가 느끼고 생각한 것이 고스란히 전해졌고, 자연히 그간 여행을 다니며 느꼈던 에피소드며 이런저런 감상들도 겹쳐서 더욱 행복한 독서 시간이었다.

## 김미향 대리

단숨에, 그리고 아껴가며 읽은 이 책은 2년 전 떠난 프랑스와 벨기에 여행을 떠올리게 한다. 기차 파업으로 2주 동안 인내를 가르쳐준 프랑스 파리, 수십 개가 되는 홍합을 까먹느라 손이 팽팽 부은 지도 몰랐던 벨기에 브뤼헤, 장소는 분명히 다르지만, 이영하가 묘사하고 있는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모습은 내가 다녀온 두 유럽국가와 비슷한 얼굴을 지니고 있어 읽는 내내 설레고 다시 발걸음을 옮기게끔 하는 충동을 일으켰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디에도 가지 못해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던 찰나에 여행의 갈증을 해소해주고, 시칠리아를 여행하는 듯한 대리만족을 느꼈다.

## 장수정 대리

“그 자리에 앉기 전까지는 나는 한 번도 시칠리아에 가겠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었다.”라는 문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나는 무엇인가 즉흥적으로 해본 적이 있는데, 문득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떠나 현지에서 숙소를 구하고, 보이는 식당에 가보는 것도 일상에서 벗어나는 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했다. 또, 이 여행에서 인상 깊었던 점은 작가의 아내가 동행하고 있지만 글의 전면에 등장하는 법이 없었다는 점이다. 친구와 여행을 가도 항상 같이 다니기 마련인데 이 부부는 따로 또 같이 여행한다. 이런 여행은 결혼생활과 많이 닮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적당한 거리 또한 올바르다고 생각했다.

### 장준원 차장

‘나라면 과연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작가는 현재의 삶을  
유지하기보다 가진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생활을 과감히 선택한다. 시칠리아 여행을  
통해 현지인의 여유로운 삶과 다양한 유적지  
등을 만나는 것이 흥미로운 반면 읽으면  
읽을수록 떠오르는 생각은 ‘나는 뭘 하고 사는  
거지?’이다. 좋아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이  
많았던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정현일 차장

크게 보고 자신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인생의 정도인  
것을 다시 한번 이 책을 보고  
느낀다. 물론 내가 실천하느냐  
마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하지만 인생을 걸만한 일을  
찾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 같다. 김영하에게 소설이  
있었다면 나에게도 뭔가가  
있지 않을까? 꼭 찾고자  
한다. 그리고 시칠리아에 갈  
생각이다.

### 이혜림 과장

“난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안절부절못하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시칠리아 사람들을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아.  
그냥, 그냥 사는 거지. 맛있는 거 먹고 종일 얘기하다가 또 맛있는 거  
먹고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고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거야.”  
계획이 틀어졌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것,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  
닥치는 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마음속으로 되뇌어 본다.  
여행이 곧 삶이고 삶이 곧 여행이므로 흐르는 강물처럼 자유롭게  
사는 것을 꿈꾸며, 팍팍한 현실 속에 지중해의 뜨거운 햇살을  
느낀 듯 따뜻한 마음으로 책을 덮었다.

### 오래 준비해온 대답 김영하 저, 복복서가

소설가 김영하가 10여 년 전 시칠리아를 여행하며 보고 느낀 것을 생생히 담아낸 책으로, 2009년 출간한 『네가 잃어버린 것을  
기억하라』를 새로운 장정과 제목으로 복복서가에서 다시 선보였다. 2007년 EBS 〈세계테마기행〉 제작을 준비하던 제작진이 어  
떤 곳을 여행하고 싶냐고 물었을 때, ‘마치 오래 준비해온 대답’처럼 시칠리아라고 답한 것이 책의 제목이 되었다. 스마트폰이 대  
중화되기 직전의 2008년, 아주 느린 시선으로 시칠리아의 맛과 풍광, 촉감, 냄새를 가득 담고 있는 책이다.



# 윤리 경영이 협업의 기반이다



윤은기

한국협업진흥협회 회장

홍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경영학박사

“경쟁은 아름답다.”, “경쟁이 혁신이다.” 지난 80년대 초부터 불어 닥친 신자유주의의 핵심동력은 바로 경쟁을 통한 혁신, 성장, 번영의 추구였다. 잘하나 못하나 비슷하게 보상을 해주는 공산주의 경제체제가 생산성 약화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사조였다. 시장원리에 맡기고 경쟁을 통해 혁신해가면 성장과 번영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 것이다.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심지어는 비영리단체조차도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 경쟁을 통한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을 해야 하니 연봉제 대신 상대평가제가 급속히 도입되었다. 성과를 많이 낸 사람이 더 가져가고 성과를 적게 낸 사람이 덜 가져가는 게 경제정의라고 여겨지던 시대였다. 경쟁이 가속화되더니 급기야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승자독식’을 인정하는 극단적 보상체제가 되고 말았다. 초기에는 성장발전에 크게 기여한 신자유주의 경쟁방식이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문제점을 만들어내었다. 우선 지나친 경쟁에 따른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나타났고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였다. 상대평가제가 강화되면서 팀워크가 깨지고 정보공유가 차단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모든 것을 돈으로 평가하고 부의 계급화 현상이 생기면서 인본주의가 쇠퇴하고 물질만능주의 풍조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자체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라고 판정을 내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초기에는 장점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단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장점을 뛰어넘게 되었다는 것이다.

무한경쟁의 끝자락은 상쟁이다. 상쟁이 계속되면 공멸이 온다. 따라서 새로 나타난 사조가 지속가능경영이다. 지속가능경영은 인본주의와 상생을 바탕으로 한다. 또한, 환경 보존을 중시하는 개념이다. 이것이 점점 발전하여 이제는 협업경제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협업은 다양한 개체가 서로 다른 장점을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거나 거대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협업경제를 생태자본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산에 서식하는 동물이나 식물의 종이 다양할수록 어떠한 외부변화의 충격에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세진다. 기업도 생태계의 한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업 내부에는 임직원이 있고 밖으로는 고객, 거래처, 지역주민, 시민단체, 언론 등 국가구성요소들이 연결되어 있다. 서로 배려하면서 상생의 힘을 키우면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소수의 탁월한 인재가 조직 전체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서로 배려하고 팀워크를 살려 일하는 협업형 인재를 원한다.

무한경쟁 시대에 기업들이 추구했던 것은 ‘핵심역량’이었다. 다른 기업보다 더 탁월한 기술을 보유하고 더 좋은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했다. 요즘은 핵심역량 플러스 협업역량이 필요한 세상이다.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만들고 공급하는 것보다는 협업을 통해 생태계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강한 기업 그리고 아무리 큰 기업도 독자적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이다.

그동안 협업에 대한 책을 쓰고 강의에 매진해 왔다. 협업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조직 내 칸막이에 협업 통로를 열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상황에 따라 즉각 협력해서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평가지표에 협업요소를 넣는 것도 필수적이다. 예를 들면 자기 기본임무 수행 평가 70%, 협업을 통한 성과 30%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협업관리자(CCO: Chef Collaboration Officer)를 두는 것도 중요하다. 조직 내부 외부의 협업 방향을 정하고 협업을 촉진하며 평가하고 개선해나가는 역할을 맡는다. 협업이 혁신이고 협업이 상생이다. 몇 년간 협업 강의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협업의 개념은 어느 정도 알겠으니 방법을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그때마다 조직을 유연하게 만들어라, 정보공유시스템을 갖춰라, 평가시스템을 개편하라, 협업관리자를 지정하라, 협업아이디어를 공모하라는 답변을 많이 했다.

그러다가 최근에 협업 성공사례를 파고들면서 더 크게 깨닫게 된 것이 있다.

협업역량의 핵심기반은 ‘윤리성’과 ‘감사하는 마음’이다. 인간은 믿을 수 없으면 협업을 할 수 없다. 상대방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뛰어난 강점이 있어도 믿을 수 없으면 협업은 오히려 위험하기까지 한 것이다. 세계 우수기업들은 협업의 첫째 조건을 바로 윤리경영에 두고 있다. 강한 윤리 규범을 가지고 있는가? 잘 준수하고 있는가? 윤리성 평판이 좋은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협업 조건이다. 둘째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보답하려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다. 개인도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기꺼이 협력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서 협업 경영을 잘하는 한 중견기업은 오래전부터 ‘감사운동’을 펼쳐오고 있다. 직원끼리 감사하고 고객에게 감사하고 거래처에 감사하는 마음이 조직문화에 녹아있다. 이 기업은 내부협업뿐만 아니라 외부협업도 잘하면서 발전해가고 있다. 인간존중을 기반으로 상생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에는 개인이든 조직이든 협업역량을 길러야 한다. 서로 믿고 서로 도울 수 있어야 협업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리가 협업의 핵심기반이다.

# HRD NEWS



##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참여

김동만 이사장은 8월 18일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에 참여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20년 3월 외교부에서 시작한 릴레이 캠페인으로, 코로나 19 극복 메시지가 적힌 팻말을 든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다음 참여자 세 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공단은 우리은행 권광석 은행장과 한국동서발전 박일준 사장으로부터 추천 받아 릴레이를 이어갔다. 김동만 이사장은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함께 철저한 방역에 동참하여 이겨낼 수 있다. 공단도 고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캠페인의 취지를 시사했다. 다음 참여자로는 한국노총 이동호 사무총장, 우리종합금융 김종득 대표이사, 선원노련 정태길 위원장을 추천했다.





### 제45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공단은 8월 19일(수) 서울 로얄호텔에서 「제45회 국제기능올림픽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제기능올림픽 유공자 정부포상' 대상은 국제 대회에서 숙련기술 강국의 위상을 드높인 선수단과 지도위원, 선수소속기관 등으로, 수상자는 훈장 16명, 포장 28명, 대통령표창 3명 등 총 108명이다. 이번 수여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참석자 수를 최소화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1, 2부로 나눠 진행하였다. 한편, 작년 8월 러시아 카잔에서 개최된 제45회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우리나라에는 총 56개 직종 중 47개 직종에 52명이 출전하여 41개 직종에서 우수상 이상(금7, 은6, 동2, 우수26)을 수상하였다. ('19.8.22.~8.27. 러시아 카잔에서 총 참가국 68개국(1,355명) 중 종합 3위 달성) 선수들과 국제지도위원들은 "2021년 중국 상하이 국제기능올림픽에서도 좋은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허대만 기획운영이사 취임식

공단은 3일, 허대만 전 행정안전부 장관정책보좌관을 신임 기획운영이사로 임용하고 취임식을 진행했다. 허대만 기획운영이사는 "소통과 공감으로 공단의 발전을 위해 지원할 것이다.内外부 고객만족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함께 달성하자"라며, 공단 본부 및 전 부서를 방문하여 직원들과 만남을 가졌다.



### 공단 '미래전략추진단' 출범

공단은 18일, 중장기 조직체계 정비와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미래전략추진단'을 공식 출범했다. 이는 공단이 내부 조직을 점검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사업체계를 정비하여 재도약하겠다는 전사적인 의지를 담은 조치이다. 해외취업국 문현태 국장을 포함하여 실무자 중심으로 전담 7명, 겸임 12명 등 총 19명 규모로 구성된 추진단은 '조직운영개선팀'과 '사업운영 개선팀'으로 이원화하여 공단 조직과 사업운영 전반의 문제점과 원인을 도출하고 조직체계 정비, 사업별 발전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공단 전 직원이 참여하는 '열린진단'을 실시하여 현장 사업부서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부, 학계, 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조직운영자문단'을 운영하여 대안을 함께 마련한다.

worldskills  
Kazan 2019

# Letter box

## 김태완

<신박한 자격>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근로자들이 일과 후나 주말, 휴일을 더욱 유익하고 효율적으로 보내는 여러 프로그램과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 박순화

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 기사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공단 신규직원을 보며 ‘초심’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자신을 반성해 봅니다. 축하드립니다. 파이팅!

## 이주안

공단과 카카오의 협약으로 더욱더 손쉽게 국가자격시험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네요. 다양한 국가자격시험을 준비 중이다 보니 더욱더 반가운 소식입니다. 대환영입니다!

## 주경심

한국산업인력공단 정기간행물에는 자격, 기술, 직무분석, 기업에 관한 소개가 많아서 읽을 때마다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절감하게 됩니다. 어떤 간행물보다 기업과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잡지에서 좋은 사람과 좋은 기업을 연결해주는 역할도 하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 하성연

양성진 님의 자격증 취득과정이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제가 하는 업무가 수질분야인데 수질환경기사 안내가 올라와서 반가웠습니다. 이처럼 취업이 잘 되는 자격증 정보를 꾸준히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 전호재

<생생 꿈지도> ‘새로운 직업의 발견, 그 시작을 자격증과 함께하다’ 편을 읽고 스크랩을 해두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어떤 직업을 찾아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차근차근 자격증 정보를 얻고 나에게 맞는 자격증을 취득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대한민국 청년이 되리라 다짐해 봅니다.

HRDKorea

vol. 291



QR코드를 인식해  
이번호 의견을 보내주세요!

### 지난호 당첨자

김태완 75**	박순화 12**
이주안 59**	주경심 79**
하성연 29**	전호재 96**

### 이번 HRDKorea 어떠셨나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상단 QR코드를 인식해

의견을 남겨주시거나

엽서, 이메일

(kyj626200@hrdkorea.or.kr/

이름, 연락처 기재)로 이번 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을

기재해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문화상품권(3만원권)을  
보내드립니다.

당첨 안내는 기재해주신

연락처로 안내됩니다.



2020  
Jeollabukdo the 55<sup>th</sup>  
**National  
Skills  
Competition**



2020 전라북도 제55회

# 전국 기능경기 대회

미래를 여는 천년전북, 기술로 꽂피우다

2020. 9.14(월) ~ 9.21(월) 8일간



## 열린경기장

제1경기장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제3경기장  
(주) 명신

## 학교경기장

제2경기장  
전주공업고등학교

제4경기장  
이리공업고등학교

제5경기장  
전북하이텍고등학교

제6경기장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제7경기장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Jeol

Ca

주최 고용노동부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

주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 전라북도 기능경기위원회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후원 SAMSUNG IBK기업은행 HYUNDAI KIA 카드 푸드뱅크 현화에어로스페이스 FESTOOL KCC NOROO 노루레인트 3M LS 산전

KM 국제증권(주) daedong LS 雷士通 TM 텔링글라스웨어 I-ITech (주)한국설비기자재 혼성화학 (주)한국전기공사영화 GS 카드 INNOVIT 대한기계설비인증협회



변화의 시대, 위기를 기회로!

"직업능력개발과 함께"

# 제14회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 뉴 노멀 시대, 인간 중심 인적자원개발

2020. 9. 10.(목) ~ 11.(금) |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오프라인) 및 실시간 생중계(온라인) 병행

### 기조 강연자



KEY NOTE 1

토니빙엄(Tony Bingham)

미국 ATD 협회 회장 겸 CEO  
인적자원개발의 현재와 미래



KEY NOTE 2

정재승

KAIST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  
뇌과학으로 바라보는 인간의 노동과 삶



KEY NOTE 3

유흥준

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좌교수  
한국 문화의 정체성과 미래 사회



### 동시강연 주요 강연자



오인경

자식회사 대표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되는  
신교육의 물결 '목적중심학습'



이상욱

한양대학교 철학과 교수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포스트 휴먼니즘



고현숙

코칭경영원 대표코치  
코로나 이후, 어떻게  
몰입도를 높일 것인가?



문은호

SK Telecom 행복소통CoE 리더  
SKT의 Digital Work  
추진 사례



이두희

여정이사자처럼 대표

뉴 노멀 시대, 새로운 IT 교육



강성춘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HR의 NEW 패러다임,  
인사이드아웃으로 혁신하라!



김승일

모두의연구소 대표  
AI혁신학교, AIFFEL(아이펠)



장재웅

동아일보 기자  
애자일과 혁신 일 적용사례

### 컨퍼런스 참관 등록 안내

참관 신청은 온라인 사전등록으로만 가능하며 현장 등록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오프라인 행사 진행여부와 참관객 규모는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등록 방법 | 온라인 사전 등록 <http://인적자원개발컨퍼런스.org>

등록 기간 | 8월 24일(월) 10:00 ~ 9월 8일(화) 18:00



결취선  
①

## 보내는 사람

이 름

주 소

전 화

--	--	--	--	--

## 우 편 엽 서



##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수집 및 이용 목적 : 업서 당첨자 공지 및 상품 발송
- 수집항목 : 이름, 전화번호
- 보유기간 : 동의 철회 시까지, 수신 거부 시 즉시 삭제
-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할 경우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결취선 ②

**HRD Korea**

울산광역시 종구 종가로 345(교동)

한국산업인력공단 홍보실

HRD KOREA 담당자 앞 T. 052-714-8195

4	4	5	3	8
---	---	---	---	---

(○) 이곳에 구멍을 뚫어서 벽에 걸어주세요

**HRD Calender****09**

2020년 9월 국가자격시험 일정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2	3	4	5
				• 제15회 한국어교육능력 검정 1,2차 추가 원서접수(9.3~9.4) • 기사 제122회 면접시험 원서접수(8.31~9.3)	• 관광통역안내사 1차 시험(9.5) • 제6회 순애경가사 2차 시험(9.5)	
6	7	8	9	10	11	12
		• 기능사 제4회 필기시험 원서접수(9.8~9.11)		•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추가 원서접수 (9.10~9.11)	• 제15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 1차시험(9.12) • 제37회 관세사 2차 시험(9.12)	
13	14	15	16	17	18	19
				• 제18회 가맹거래사 2차 특별 추가 원서접수 (9.17~9.18) • 제20회 소방시설 관리사 2차 추가 원서접수(9.17~9.18) • 기능장 제68회 실기시험(8.29~9.18)	• 기능사 제3회 실기시험(8.29~9.19) • 제31회 김정평가사 2차 시험(9.19) • 기사 제4회 필기시험(9.19~9.27) •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9.19)	
20	21	22	23	24	25	26
					• 제18회 가맹거래사 2차 시험(9.26) • 제20회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 (9.26) • 제8회 행정사 2차 시험(9.26)	
27	28	29	30 추석연휴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큐넷을 꼭 참고해주세요!

※ 자격시험 시행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큐넷([www.Q-net.or.kr](http://www.Q-net.or.kr))을 참조하세요.

▪ 원서접수 일정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이번 호에 실린 기사 중 가장 만족스럽고 유익했던 내용과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질취선  
①

앞으로 <HRD KOREA>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사보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적어주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 혹은 이번 호 **HRDKorea**에 등장했던 인물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일자리 관련 슬로건을 자유롭게 만들어주세요. (예시)전 국민의 평생고용 역량을 키우는 No.1 HRD 파트너



질취선 ②

이곳에 구멍을 뚫어서 벽에 걸어주세요

